

## 문순태 칼럼

## 광주에 남긴 케니지 여운



소설가

책은 정신을 살찌우고, 음악은 감성을 물결치게 한다.

좋은 책을 읽으면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서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것과 같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세상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책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음악은 새로 운 감흥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말이다.

인생에서 안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일이다. 가슴에 계산기와 철판을 깔고 효율성만을 따지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감성 회복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느끼는 것을 하찮게 여기며 산다. 진정 행복한 삶이란 암과 느낌, 즉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룰 때 충분하게 맛볼 수 있지 않은가 싶다.

지난 주 우리 부부는 색소폰 마술사 케니

지의 감미로운 음악에 흡신 젖었다.

광주 MBC 주최로 광주에서 처음 열린 케니지 콘서트는 늙은 부부에게 몽환적 감미로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기존의 케니지 밴드에 대규모 심포니 오케스트라 반주가 어우러진 이번 콘서트 무대는 화려하고, 응장한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두 시간 동안 ‘고양 헤’, ‘레비 유’ 등 귀에 익숙한 음악 속에 폭 빠졌다.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케니지 음악은 마치 가야금 산조가락처럼 우리 정서에 딱 맞았다. 소프라노 색소폰의 흐느낌은 점액질 한의 소리와도 통한 것 같았다.

그림으로 치자면 먹으로 다섯 가지 색을 표현한다는 수북산수화를 감상하는 느낌이었다. 여자처럼 앙강하고 왜소한 체구에, 57세의 초로 나이에도 2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연주한 케니지.

세계 정상의 인기를 누리는 엔테이너인 데도 오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보여주는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특히 공연이 끝나고도 출을 서서 기다리는 수백 명의 팬들에게 끝까지 친절하게 사인을 해주는 그를 보고 느낀 것이 많았다.

역시 훌륭한 예술가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팬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음악 속에 담긴 뮤지션의 아름다운 혼을 느낄

수가 있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3천석을 거의 매운 관중이 케니지와 호흡을 맞춰준, 수준 높은 매너로 칭찬할 만했다. 관중과 연주자가 박수와 화답으로 음악을 통해 하나되는 모습이 적지 않은 감동을 주었다. 관중 대부분이 40~50대 중년 부부들이라는 것도 눈에 띠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주최 측 이야기로, 입장권이 19만 8천 원인 R VIP석과 17만6천 원 하는 VIP석이 가장 먼저 매진되었고, 9만9천 원하는 A석은 표가 나가지 않아 빈 좌석이 많다고 했다. 대형 콘서트 입장권에도 양극화가 뚜렷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슬펐다.

연주가 끝나고 나오다가 서울에서 출판사를 하는 K사장 부부를 지빠만나게 되었다.

서울과 대전 공연을 모두 놓치고 마지막 광주공연을 보기 위해 비행기로 내려왔다가, 다시 고속버스로 올라간다고 했다. 케니지 연주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온 그들 부부의 낭만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음악이 뛰어가 60대 부부가 40만 원씩이나 들어 좌석권을 사고 비행기로 광주까지 내려왔다는 말인가. 나는 문득 악학궤범(樂學軌範) 서문이 떠올랐다.

‘음악은 하늘에서 나와 사람에 머물고, 하루에서 나와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고 그 혈맥(血脉)을 뛰어 하여 정신을 유통케 하는 것이다.’

옳거니, 일상에 지친 그들 부부는 정지해 있는 감성의 혈맥을 다시 뛰어 하기 위해 광주까지 온 것이라. K 사장은 고속버스터 미널 앞에서 헤어지면서 하루 품을 떨어 광주 콘서트에 오기를 참 잘했노라고 말하면서도 연주회에 대해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공연장의 다투다 다투 불여놓은 불편한 의자며, 대형 스크린 화면의 노이즈 현상, 음향 문제를 놓치지 않고 꼬집었다.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직 세계적인 대공연장 시설 하나님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아무튼, 케니지 음악이 대중적이고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광주 시민들에게 큰 감동과 여운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공연이 끝난 지 열흘이나 지났는데도 내 가슴 속에서는 케니지의 색소폰소리를 걸치고 있다.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케니지의 긴 갈색 머리가 바람에 날리듯 ‘해변의 길손’이 촉촉하게 가슴을 쪘다.

오늘 나는 자동차에서 오랫동안 들었던 재즈와 소울의 여왕 니나 사이몬의 CD를 내리고 케니지로 바꿨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색소폰 소리에 맞춰 내 마음 춤추게 하기 위해서.

## 社 說

## 어등산 유원지 조성 1년 넘게 제자리라니

어등산 유원지(테마파크·호텔) 사업이 1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광주시가 ‘어등산 골프장 선(先) 개장’을 승인하는 대신,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익성을 이유로 기업들마다 밭을 빼고 있다고 하니 시의 개발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광주시는 지난 2005년 광산구 운수동 일대 어등산에 2015년까지 3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시켜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골프장 27홀도 포함됐다. 시는 당시 공의사업이며 투자를 대신해 직접 사유지 142만3000㎡까지 매수해 주는 등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투자는 골프장만 완공한 뒤 ‘테마파크 등을 지을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골프장만 우선 개장하겠다”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일부 부지 를 시에 기부하고, 골프장 수익금 일부로 환원하는 등의 우선 개장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광주시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에서는 특례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광주시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 최대한 빨리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수정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1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는 현재 투자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우선 먹기 곱감이 달다’는 식으로 골프장만 달랑 문을 열어주고, 유원지는 나몰라라하는 형국이다.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해놓고 시가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인가.

광주시는 당장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유원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 시의원들도 학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감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치매노인 인권 유린,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치매환자의 비극적인 삶이나 학대 등 인권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치매를 앓던 70, 80대 노인이 스스로 목을 매거나 뒷바리자지던 노인이 환자와 동반 자살했다는 보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치매노인들이 인권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지역 치매환자는 1만 3227명, 전남 3만8372명 등 5만15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남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치매 유병률이 7% 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치매환자를 둘둘 전문요양시설은 단 한 곳도 없고, 전문인력 등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치매관리 강화를 위해 권역별 치매센터를 선정했으나 광주·전남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

또한 최근 들어 노인요양전문병원들

## 無 等 鼓

권력(power)을 잃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줄리아 갈리라 전 호주총리가 지난 6월 26일 노동당 대표 경선에서 리아벌린 케빈 러드에게 45대 57로 패해 권력을 내놓았지만 했던 쓰리린 기억을 최근 영국 가디언이 특별기고를 통해 털어놨다.

‘경선 결과가 나오던 날 밤, 나는 훌로 앉아 있었다. 그렇게 있고 싶었고, 스스로를 (현재의 상황에) 훨슬러가도록 그저 내버려두고 싶었다. ‘권력을 잃었다’는 느낌은 엄청난 감정의 물결로, 그리고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경선 이후) 스스로 ‘이제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다가도 문득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찬장 정리를 하던 중 기념품을 밟았을 때, 심지어는 (권력을 잃고 있었던) 옛날에 대한 농담을 주고 받을 때조차도 갑작스럽게 고통이 뛰어나왔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은 그 고통은 너무도 심해서 내장을 물론

밀단 신경까지 아플 정도였다.’

권력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을 주구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정당한가의 여부다.

/홍행기 사회팀 redplane@kwangju.co.kr

## 오픈칼럼

김창균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김홍도의 풍속화 ‘서당’을 보면 한 학동이 훈장에게 등을 돌리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옛날 서당에서는 전날 공부한 것을 외우는 복습이 공부의 시작이었는데, 이때 돌 아왔어서 암기한 내용을 외우므로 배송(背誦)이라고 했다. 이 아이는 어제 배운 것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해 꾸지람을 들었을 것이고, 좋아리를 걷기 위해 대님을 풀며 회조리 맞을 생각에 울고 있는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것을 쓰고 도포를 입은 양반집 자제와 무명옷을 입은 종인의 자제가

## 교육기회 균등과 ‘광주 희망교실’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는 막 실학이 전파되던 때로, 밤상(常)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 그리 자연스럽지 않은 때였다. 종인 출신인 김홍도의 교육에 대한 바람이 녹아든 것은 아닐까 싶다.

근·현대화 과정에서도 교육은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펑동하게 제공된 교육 기회는 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었다. 교육이 단순화되었다는 비판도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회적 꿈은 사회 안정과 통합에도 기여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사교육 시장이 광장하며, 부모의 부유함과 계층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찍이 라이머(E. Reimer)는 ‘학교는 죽었다’에서 학교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로서 “학교 체제를 통해 계층 간의 차이를 만들고, 그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설파하였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개천에서 종 난다’로 속답이 ‘개천에 서 종 난다’로 표현되는 것은 학교 교육이

조장하는 구조화된 차별의 대표적인 패러디(parody)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쳐 출발선부터 공정 경쟁을 어렵게 만든다면, 이를 해결하려는 학교 현장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올해 광주 교육청이 추진한 ‘2013 광주 희망교실은 불리한 교육 여건의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의미 깊은 프로젝트였다. 학교 내의 교육수준과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멘토가 필요한 일반학생 등 불리한 교육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500명의 교사들이 멘토가 되어, 이들에게 꿈을 찾게 해주는 무료 교육기부 봉사활동이나 해마다 치어나온 학교 체제를 통해 계층 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은 비판이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는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제시하여, LA 필하모닉 상임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발과 같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온펜클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인 모임인 ‘온펜클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기고

이정삼  
광주시 흥정정책과장

성경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이 있다. 먼저 자신을 알고 사랑해야만 타인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자신에 대한 편견이나 고집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을 지우는 데 있다. 진정한 자기사랑이 있어야 가족사랑, 이웃사랑, 지역사랑을 넘어 민족애, 인류애로 승화될 수 있다.

애한심도 마찬가지다.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의 “아는 만큼 느낀다”는 말처럼 지역의 자산에 대해 알아야 사량이 생기고 지역사랑이 있을 때 타지역에 대한 사랑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광주의 지역환경자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 알고 나면 자랑스러운 광주의 환경자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광주의 자연경관이나 환경에 대해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함,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끊기지 않아 생각된다. 단순히 자연경관만 보더라도 스위스 알프스의 웅프라우, 캐나다 록키산맥의 밴프 국립공원, 미국의 그랜드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등 거대한 스카일로 장엄함을 뿐만 아니라 경관에 침취해 우리의 어머니산, 무등산을 잊을 수도 있다.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2025년까지 단소종립도시를 선언한 유럽의 환경수도 데마크 코펜하겐, 대중교통의 선진지 브라질 구리자체, 신재생에너지 도시 독일의 프리부르크를 영원한 배움의 대상으로 간주할지도 모른다.

자연적 요소는 물론 도시별 여건에 따라 환경수준에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정착하고 알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노력이라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11년 개최된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가 우리 광주의 환경자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고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을 느낀다. 행사 준비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국제환경회의를 주도하는 광주가 보여줄 만한 환경자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회의 이전까지 무등산·소쇄원·시기문화권 등 자연문화자원과 천연기념물 100% 보급·친환경매립장·폐선부지 푸른길·탄소은행 등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을 담은 ‘광주환경우수사례’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랑으로 뒤바뀌게 되었다.

아울러 2011 UEA 광주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126개 도시·국제기구 대표의 합의에 따라 광주에 설립된 최초의 국제기구인 UEA 사무국에서는 도시주도의 온실가스 감축패러다임인 도시 CDM을 창안함으로써 인천에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과 연계한 세계도시의 온실가스감축 국제질서로 제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제 국가가 공인한 건강도시,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은 우리 광주의 환경에 대한 긍정적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150만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온 무등산국립공원, 탄소은행, 건강도시 등 광주의 환경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지역의 환경비전과 내실을 다지고 광주가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성장해 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된다.

광주사랑의 출발은 먼저 우리 자신을 아는 데 있다.

고개 살리는데, 예를 들어 먹기만 하면 질병은 저절로 낫고 부작용이 삶을 빠진다고 돼 있다. 심지어 암 치료기능까지, 이에 만병통치약이라고 광고하니 자루라기라도 잡고 싶은 위증한 환자들은 거기에 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상실험이나 제대로 거쳤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경고